



해외 동향

□ 롤스로이스, 완전 전기비행기 공개

- 세계에서 가장 빠른 완전 전기 비행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롤스로이스가 지난 26일 영국 글로스터셔 공항에서 개발 중인 전기비행기 공개
- 롤스로이스 악셀(ACCEL)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올 봄까지 전기 추진 시스템 통합 작업 진행
- 악셀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항공 산업을 구현하고 전기추진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



악셀 프로젝트(ACCEL)

- 2030년까지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대체해 전기화하기 위한 롤스로이스의 전략 중 하나로,
- 영국의 항공기술원(ATI), 이노베이트UK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기모터·컨트롤러 제조업체인 야사와 스타트업 등 다수의 파트너들이 참여

□ 인도네시아, 개발 중인 공격용 무인 드론 첫 공개

-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제조업체 PTDI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등과 컨소시엄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군용 무인 드론을 첫 공개
- ‘을랑 히탐(검은 독수리)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드론은 테러, 밀수, 해적 행위, 천연자원 약탈 등의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 중으로 2024년 최종 완성 목표
- 현지에서는 드론 생산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

을랑 히탐(Elang Hitam, 검은 독수리)

- 폭 16m, 길이 8.65m, 높이 2.6m
- 시속 235km, 최대 30시간 비행
- 무게 300kg, 미사일 탑재 가능



국내 동향

□ 현대차, 2028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서비스 할 것

- 현대자동차, ‘국제가전박람회(CES) 2020’서 미래 도시 모빌리티 전략인 ‘도심 항공 모빌리티(UAM)’ 비전*을 발표

* UAM-PBV-HUB를 연결해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

* UAM은 수직이착륙(eVTOL)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(PAV)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서비스

* PBV는 지상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가능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

- 또한,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(Uber)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우버의 항공택시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완성한 실물 크기의 PAV(Personal Air Vehicle, 개인용 비행체) 콘셉트인 ‘S-A1’도 최초 공개



S-A1

- 순수전기비행체(날개 15m, 전장 10.7m)
- 최대주행가능거리 :100km(1회 완충)
- 탑승최대인원 : 5명
- 최대속도 : 290km/h
- 비행가능범위 : 고도1천피트~2천피트

- 국토부에서도 UAM 실현을 위한 기체개발 인증과 운영을 위한 관제 등 인프라 지원 예정

□ 국토부,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

- 국토교통부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인바운드(외국인 방한객) 활성화,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’을 발표

•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내용

인바운드 수요 창출	혁신형 산업 지원체계 구축	MRO, 물류 등 연관산업 확장	항공안전 강화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시장 개척 지원 • 인바운드 수요유지 지원 • 공항 슬롯 확대 • 항공사간 협업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글로벌 수준의 규제혁신 • 항공금융 활성화 • 공항사·항공사 동반성장 • 건실한 항공기업 육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RO 육성 및 LCC 정비지원 • 글로벌 수요맞춤형 항공화물 서비스 체계화 • 스마트공항 고도화 및 중소기업·스타트업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핵심리스크 관리 • 인적과실 장애 감축 • 취약항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항공기 기체결함 대응

- 이로써 사천은 사천공항에서 중정비를 담당하고 국제인증(FAA)를 취득한 MRO업체의 정비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□ 방사청, 해외무기 구매시 국내 정비 능력 최우선 고려

- 방위사업청은 해외무기 구매 시 국내 정비 능력을 최우선 협상안으로 제시하기로 절충교역* 지침 개정

*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부품, 수출, 관련 기술 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교역 방식

- 무기 구매 시 부품의 일부를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'산업협력 쿼터제'를 도입하고 절충교역 명칭을 '산업협력'으로 변경
- 사전 가치 축적 제도 적극 도입,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경우 대기업의 2배 가치인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, 일자리창출,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 강화 기대

※ 사전 가치 축적 제도란 국내 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축적해줬다가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제도로 터키와 이스라엘에서도 시행 중



도내 동향

□ 하이즈항공, TBAL과 88억원 규모 항공기 부품 계약

- 하이즈항공은 인도 TATA 그룹 계열사인 TBAL(Tata Boeing Aerospace Limited)과 88억원 규모의 항공기 부품 계약 체결
- TBAL은 인도 대표기업 TATA와 보잉이 2015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항공기 동체와 날개를 포함한 다수의 항공기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민항기 사업 부문에서 가파른 성장 중
- 이번 계약은 하이즈항공의 2018년 매출액 대비 19.22%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며, 2020년 세계 3위 항공시장이 되는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국산1호 항공기 부활호 전시

- 사천시는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 전시용으로 보관하던 국산 1호 항공기인 '부활호'를 사천시청 의회동 캐노피 아래에 이전 전시
- 부활호는 1953년 10월 최초로 사천 공군기지에서 제작된 다목적 항공기로 1960년대 사라진 후 2004년 부활호 개발 책임자였던 이원복(예비역 공군 대령)씨가 대구 경상공업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원형을 발견하여 2004년 10월 복원 완료
- 복원된 부활호는 2008년 10월 등록문화재 411호로 지정, 이후 경상남도과 사천시에 의해 개량 복원 사업이 시작되어 2011년 2기(비행용, 전시용) 제작
- 사천시는 시청에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

□ KAEMS, 제주항공과 B737NG 13대 정비계약 체결

-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(주)(KAEMS)는 제주항공과 오는 2026년까지 7년간 B737NG 13대의 동체, 날개, 배선, 객실 등 기체를 중정비(C-check)하는 장기계약을 체결
- KAEMS는 작년 9월 미국 연방항공청(FAA) 인증을 획득한 후 국내외 입찰에 참여 중이며 에어버스 주력 기종인 A320 계열 항공기 정비 인증 획득 준비 중
- KAEMS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함께 정비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중이라고 강조

작성일	2020. 01. 08.(수)	보고일	2020. 01. 09.(목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이희진(055-831-3482)